하루를 시작하며

김 문 정
시인

같이 춰요, 은혜 씨

갓 구운 빵 내는 나를 무장해제 시킨다. 오래 전 그날, 나는 빵 앞에서 천근같이 서성인다. 허리 선 쯤에 놓인 매대 보다 더 아래에 물끄러미 박힌 그녀의 정수리. 단정하게 질끈 묶은 머리 아래로 너무나 왜소한 몸. 몇 군데 코너를 돌며 장 보는 내내 자꾸 신경이 쓰인다. 끝내, 도와주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지 못한 나를 오래 자책했다. 그 때, 나는 장애와 어울려 사는 일에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다. 지금도 서툴지만.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났다. 글재간 훌륭한 작가의 시나리오와 탑 배우들의 출연에 믿고 보자는데 제주 섬이 배경이라 하니 더 끌렸다. 푸른 바다와 돌담, 바람과 햇살 가득한 풍경은 익숙한 어디쯤이고 찰진 제주어 연기가 볼수록 흥미로웠다. 빼고 보탤 것 없는 완성도에 감탄하면서 정작 놀라웠던 것은 초보해녀 영옥의 언니, 영희의 등장이었다. 영희로 분한 배우가 정말로 다운증후군을 앓는 화가라 하고, 수어 쓰는 배우의 언어장애도 실제라 하니, 연기 이상의 연기이지 않은가.

그동안 대개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장애는 연기하는 것이었다. 다큐가 아니면서 장애의 실제가 거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노 작가는 글쟁이 이상이다. 용기마저 진중하고도 세심하며 따뜻하다. 현장에 장애를 끌어다놓고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 내다니. 멋지다. 뜨거운 현장에서의 부단했을 연습과 배려가 왠지 나로서도 고맙다. 대본대로 매 컷이 만들어 낸 장면일 테니 참 대단하다. 은혜 씨 어머니는 '거기, 그냥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고 걱정스러웠으나 기우였다고.

혐오와 편견의 시선이 있다. 남과 다른 외모와 장애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는다. 그림에 몰두하면서 외면하고 싶던 주변의 얼굴을 찬찬히 그린다. 틀 안의 가르침은 소용없고 마음대로 그리라 자유를 주니 비로소 그림이 됐다. 그렇게 그려낸 인물들이 무려 4000여 명이 넘는다. 은혜로운 은혜 씨의 성장스토리는 서브플롯이다.

이런 소수의 성공은 사실 뼈아프다. 성공만이 꼭 보람은 아니되 그래도 왁자지껄 응원하고 싶다. 우리 곁의 작가며 배우로 건강하게 살아남으시라. 가족 모두 행복하시라. 극 중의 영희처럼 단순하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사람도 편해야 좋은 나라 아닌가요.

은혜 씨가 춤을 춘다. 흐르는 음악은 'Lovers Are Strangers'. 힘을 준 듯 뺀 듯 흐느적거리는 은혜씨의 춤사위와 미셰르 그루비치의 중성적인 목소리. 빠져든다. 음울하고 거칠지만 사랑스럽다. 은혜 씨의 '니얼굴'들을 생각한다. 때때로 연인도 이방인이다. 낯설지만 꼼꼼하게 느낌대로 그려냈구나. 그러면서 장애와 더불어 유쾌하구나. 이후, 나도 뜬금없이 춤추고 싶다. 느낌대로 휘적거리며 자유로이. 내 깊숙한 결핍과 장애, 편견에서 무장해제하고 느슨해지기로. 같이 춰요, 은혜 씨.

사설

'코로나19 대유행' 임박… 선제 대응해야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 확진자가 이달들어 200명대서 500명대까지 급증,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이 기존 대책을 강조하는 선에서 벗어나 본격 휴가철에다 높은 전파력·면역회피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올 2월 이후 잦아들어 6월 최저였다가 7월로 접어들며 심각해졌다. 6월 한달동안 확진자수 4050명을 기록, 2~5월별 1만~13만명대보다 가장 낮은 안정대였다가 최근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6월말까지 하루 100명대를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7월초 200명대로, 지난 5~10일 300~400명대에서 11일엔 542명까지 늘었다. 항간에 떠도는 '7월 위기설'이 퍼지는 양상이다.

도는 현 상황을 관망하기보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제주가 휴가철 관광객 폭주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행사·모임 등에 의한 사람간 접촉 증가 탓에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다 최근 전파력과 면역회피력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무시못할 변수다. 한 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휴가철 이동량까지 감안하면 확산세를 가늠키 어렵다. 도 차원서 당장 시행가능한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피서객 집중지역, 다중이용시설, 외국인 입국자 등 관리에서부터 대규모 행사 방역, 밀폐·밀집환경 방역 점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방역대책만을 좇아선 안될 일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각별히 신경써야

얼마전 타지방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에 치여 초등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가해차량이 굴삭기여서 '민식이법' 적용 논란이 있지만 스쿨존의 사고는 가중처벌된다. 이제 운전자들은 스쿨존은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 등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건너는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강화됐다.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알다시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의외로 많다. 통계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의 45.2%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란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례가 16명(19%)이다. 그러니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세로 평상시 안전운전에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폭염 대비, 어렵지 않아요

강 규 택
동홍119센터 소방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온열질환자 사고는 최근 5년간 353명(사망자 2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역별 10만명 당 온열질환 환자수는 8.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중에서 열탈진 54.7%(193명), 열경련 26.3%(93명), 열사병 9.9%(35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열탈진은 체온 40℃ 이하로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이 나타난다.

열경련은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근육경련이 나타나며, 열사병은 40℃ 이상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로 나타나며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수분을 보충한다. 의식이 저하 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며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시원하게 해 체온을 낮춰준다.

항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3대 예방수칙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여름 폭염에 대해 의외로 무심한 경우가 있는데, 폭염이 강한 시간 대에는 고령층, 독거노인 등과 같은 취약 분야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신임 이사장, 소통의 리더십을"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 성명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새 수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11대 신임 이사장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재단을 질적 전환의 기회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

노조는 "제11대 신임이사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 책무 수행에 최적화된 경영시스템의 복구 및 안정화"라고 강조.

이에 노조는 신임 이사장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의 리더십 발휘, 사회적·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선량한 책임 경영 등을 주문. 오은지기자

"생애초기 건강관리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도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9월부터 전문가 교육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2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및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29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부보건소가 선정됐다"며 "이 사업이 지역의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양육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 건강 향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임산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원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귤(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하라베니와세(궁천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外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집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bh16@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